시대에 맞는 폐단의 개혁

이른바 시의(時宜)란 때에 맞추어 변통(變通)•하여 법을 갖추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자(程子)•가 『주역(周易)』•을 논하기를, "때를 알고 형세를 아는 것이야말로 『주역』을 배우는 큰 방법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때에 맞추어 변하여 바뀌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제정한 것이니 시대가 변하면 법도 달라집니다.

1. 중국의 사례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의 뒤를 이었으니 그와 다르게 하는 것이 없

- 변통(變通) : 어떤 제도나 방법을 때와 상황에 맞게 고쳐 시행하는 개혁.
- 정자(程子) : 북송 때의 철학자로 성리학의 기초를 다진 정이(程頤)를 말함.
- 『주역(周易)』 :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온 점치는 책이었으나 철학적인 의미가 풍부하여 성리학을 형성하는 이론적 배경서가 된 책 가운데 하나.
- 충(忠) : 공자가 규정한 하나라의 예법과 문물의 특징인데,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정성스럽고 성실한 태도를 일컬으며, 그것이 지나치면 자연스러운 순박한 바탕 곧 질

어야함에도 9주(州)를 나누어 12주로 만들었고, 우(禹)임금이 순임금의 뒤를 이었으니 다르게 하는 것이 없어야함에도 12주를 9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인이 바꾸기를 좋아해서 그랬겠습니까? 시대의 상황에 맞춘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자가 말하기를, "요임금 · 순임금 · 우임금이 왕업을 주고받았으나 그 제도와 모양 또한 저절로 조금씩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하(夏)나라와 상(商)나라 이후 그 사이에 생긴 작은 변화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는 충(忠)•을 숭상하였으나 충에 폐단이 생겨서 상(商)나라는 질(質)•을 가지고 폐단을 고쳤고, 또 질에 폐단이 생기자 주(周)나라는 문(文)•을 가지고 그 폐단을 고쳤으며, 주나라의 문에 폐단이 생겼는데도 고치지 못하게 된 뒤로 천하의 법도가 무너지고 어지러워져 천하가 강한 진(秦)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진나라의 정치는 잔인하고 난폭하여 『시경』과 『서경(書經)』을 불태우고서 망하였습니다.•

한(漢)나라가 일어나서는 진시황의 폐단을 거울삼아 너그러운 덕을 숭상하고 유교 경전을 다루는 학술을 높였습니다. 이 또한 폐

(質)이 없게 된다.

- 질(質) : 공자가 규정한 상나라 예법과 문물의 특징으로서 자연스러운 순박한 바탕이나 이것이 지나치면 거칠어서 꾸밈이 없게 된다.
- 문(文) : 공자가 규정한 주나라 예법과 문물의 특징으로 꾸밈 곧 문채(文彩)를 말함. 이것이 지나치면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만 치중하게 된다.
- 진나라…망하였습니다 :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함.

단이 생겨서 공허한 문장만 숭상하고 실제적인 절의(節義)가 없어서, 권력이 외척에게 이동하자 아첨하는 풍조를 이루었습니다. 세조(世祖)•가 일어나 절의(節義)를 기리고 높이자 선비들이 명분과 절의에 힘썼으나, 그 폐단이 생겼을 때에는 예법으로써 조절하지 못해 죽음도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지나친 절개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싫어했습니다. 당시에 현명한 군주가 나와서 그것을 해결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친 절개는 위진(魏晉) 시대의 호탕한 풍조로 변하여 도교와 불교를 숭상하고 예법이 없어졌습니다.

예법이 없어진 뒤에는 오랑캐와 다름이 없었으므로 오호(五胡)•가 중화(中華)•를 어지럽혀 중원(中原)•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혼란이 극도에 이르면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정관(貞觀)의 치세•가 있었으나, 폐단을 해결하는 데 그 방법이 완벽하지 못해서 오히려 오랑캐의 풍조•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삼강(三綱)•이 바르

- 세조(世祖) :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光武帝)로 이름은 유수(劉秀).
- 오호(五胡) :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북방에서 이주하여 열여섯 나라를 세운 다섯 이민족으로 흉노(匈奴) · 갈(羯) · 선비(鮮卑) · 저(氐) · 강(羌)의 다섯 민족.
- 중화(中華) : 중국. 원래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세계 중앙에 위치한 문명국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 중원(中原) : 중국 문화의 발상지인 황하 중상류의 남북 양안 지대를 지칭하는 말로 중화의 중심지.
- 정관(貞觀)의 치세 : 당태종의 시대에 이룩한 빛나는 정치. 정관(貞觀, 627–649)은 당태종의 연호.
- 오랑캐의 풍조 : 불교와 도교의 풍습과 문화를 말함.
- 삼강(三綱) : 임금 · 아버지 · 남편이 윤리의 기준이 된다는 원칙으로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함. 여기서는 유교의 윤리도덕

지 못하여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니, 변방의 절도사(節度使)들은 임금을 따르지 않고 권세를 잡은 신하들이 제 맘대로 날뛰자 당나라가 쇠퇴하여 오대(五代)•의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송(宋)나라가 일어나서는 앞선 시대에 일어났던 변방 절도사들의 반란을 경계하여 군사권을 해체하여 중앙에서 거두어 갔습니다. 진종(眞宗)• 이후로 나라가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군사(軍事)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인종(仁宗)• 때에는 비록 나라가 매우 부유하고 인구가 많았으나 쇠퇴하는 조짐이 이미 나타났으므로, 당시의 뛰어난 현인들은 모두가 변통할 계책을 생각하였습니다. 곧바로 신종(神宗)•에 이르러 변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 큰일을 할 뜻을 갖게 되었으나, 그가 신임하였던 자는 왕안석(王安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의(仁義)•를 뒷전으로 돌리고 공리(功利)•를 앞세우며 하늘의 뜻과 인간의 도리를 어기고 혼란과 멸망을 재촉

을 상징함.
- 오대(五代) : 오대십국(五代十國)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으로 당나라 말기부터 송나라 초기까지의 시기.
- 진종(眞宗) : 북송의 제3대 황제.
- 인종(仁宗) : 북송의 제4대 황제.
- 신종(神宗) : 북송의 제6대 황제.
- 왕안석(王安石) : 1021–1086년. 북송의 개혁 정치가이자 문학가.
- 인의(仁義) : 유학의 기본이념. 인(仁)은 공자의 중심사상이요, 의(義)는 공자의 인과 함께 맹자가 강조한 사상.
- 공리(功利) : 공(功)과 이익으로 요즘말로 하면 실용. 실제로 왕안석은 실용과 법치를 앞세워 개혁하려고 하였다.

하였으므로, 도리어 변통하지 않은 것이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큰 재앙을 초래하여 중화가 오랑캐로 변하였으니*, 다른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상하 수천 년 동안 중국 역대의 잘 다스려진 때와 혼란의 자취는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때에 맞추어 폐단을 잘 해결한 경우는 하·은·주 삼대에만 보일 뿐, 삼대 이후에는 해결한 경우가 참으로 드물었고 그 또한 방법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시대에 맞추어 바꿀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이지, 고금을 불문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왕도(王道)*와 인정(仁政)*과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입니다. 그런데 후세에서는 도술(道術)*이 밝지 못하여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고치기도 하고, 바꾸어야 할 것을 굳게 지키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다스려진 때는 항상 적었고 혼란스런 날이 언제나 많았던 까닭입니다.

- 큰 재앙 … 변하였으니 : 송나라가 금나라 침략으로 남쪽으로 갔다가 후에 몽고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말함.
- 왕도(王道) : 임금이 어진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정치. 왕도정치. 앞에 나옴.
- 인정(仁政) : 공자나 맹자가 말한 인(人)사상에 기반을 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보살피는 정치. 따라서 왕도정치도 인정(仁政)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오상(五常) :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다섯 가지 도리로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말함. 또 오륜(五倫)을 지칭할 때도 있다.
- 도술(道術) : 여기서는 유학이나 성리학을 따로 일컫는 말. 따로 도교의 술법을 말하기도 함.

해설

이 부분은 이 「만언봉사」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시의(時宜)의 의미를 밝히고, 『주역』과 정자의 말을 인용하여 개혁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주역』에서 말하는 역(易)의 의미가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법과 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이어서 이런 관점에서 중국 역사를 고대로부터 송나라까지 조망하여 치란(治亂)을 논하였는데, 그 중심 논지는 폐단을 개혁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그 폐단을 제대로 개혁한 경우는 하·상(은)·주 삼대에만 보일 뿐, 삼대 이후에는 해결한 경우가 참으로 드물고 그 방법 또한 완벽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런 역사 평가는 「동호문답」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글의 말미에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꾸어야 할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이지 도덕이나 윤리 등의 가치문제와 왕도정치와 같은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훗날 조선 말기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자 개화파 인사들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펼쳤는데, 서양으로부터 제도나 문물을 받아들여 바꿀 수 있되 윤리와 도덕은 그럴 수 없다는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개혁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일단 차치하고, 제도와 법

이 바뀌는데 윤리와 도덕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율곡이 평가한 왕안석(王安石)의 개혁이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자신들의 예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의 개혁사상의 특징은 유교사회 시스템의 전면적 변혁을 의미하지는 않는 체제 내의 개선책이라 하겠다.

이런 율곡의 역사관은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반대하는 『자치통감』의 저자인 사마광(司馬光)을 영수로 하는 송 대의 보수적인 사대부들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더구나 북송의 멸망 책임이 왕안석에게 있다는 주장이 주자(朱子) 등의 성리학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글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왕안석이 인의(仁義)를 뒷전으로 돌리고 공리(功利)를 앞세웠다는 지적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 입장에서 역사를 평가하는 말로 보인다. 개혁을 잘못한 사례의 전범(典範)으로 거론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이상정치와 도덕을 잣대로 역사를 평가하면 유사 이래로 제대로 좋게 평가될 시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그 자체가 세력 간의 이익을 두고 서로 갈등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멀리하고 백성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덕을 앞세운 이상적 정치가는 거기에 발을 들여 놓기 어렵다. 공자와 맹자 자신이 당대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도학자들이 현실정치에서 성공하기란 참으로 어려웠고, 삼대 이후 정치나 역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런 인식은 현실의 정치 참여에 거부당한 유자(儒者)들

이 당대 정치를 비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국왕이나 관료들의 실정과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재야의 인사들이나 보통사람들이 정치가나 관료들을 비판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율곡 또한 비록 순수한 유학자 집단인 사림(士林)이 현실 정치에 대거 진출할 수 있었던 선조 대에 대부분의 관리생활을 하였지만, 그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개혁을 외쳤던 것이다.

여기서 삼대에도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하였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은 공자의 전통에 따라 삼대정치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폐단을 잘 논하지 않는다. 율곡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개혁이 매우 시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 당시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살리며 왕도정치에 다가가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所謂時宜者, 隨時變通, 設法救民之謂也.
소위시의자 수시변통 설법구민지위야

程子論易曰, 知時識勢, 學易之大方也,
정자론역왈 지시식세 학역지대방야

又曰, 隨時變易, 乃常道也. 蓋法因時制,
우왈 수시변역 개상도야 개법인시제

時變則法不同.
시변즉법부동

所謂: 이른바/時宜: 때에 알맞음/者: ~것/隋時: 때를 따르다/變通: 형편과 때에 맞추어 일을 처리함. 여기서는 개혁의 뜻/設法: 법을 갖추다/救民: 백성을 구제하다/謂: 이르다/論: 논하다/知時: 때를 알다/識勢: 형세를 알다/學易: 역을 배우다/大方: 큰 방도/又: 또/變易: 고쳐서 바뀌다/常道: 불변의 진리, 항상된 도리/蓋: 대개/因時: 시대에 따라/制: 만들다/時變: 시대가 변하다/不同: 다르다

해석

이른바 시의(時宜)란 때에 맞추어 변통(變通)하여 법을 갖추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자(程子)가 『주역(周易)』을 논하기를, "때를 알고 형세를 아는 것이야말로 『주역』을 배우는 큰 방법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때에 맞추어 변하여 바뀌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제정한 것이니 시대가 변하면 법도 달라집니다.

隨時善救者, 只見於三代而已, 三代以後,
수시선구자 지견어삼대이이 삼대이후

救者固鮮, 而亦未盡道焉. 大抵隨時可變者,
구자고선 이역미진도언 대저수시가변자

法制也, 亘古今而不可變者, 王道也,
법제야 긍고금이불가변자 왕도야

仁政也, 三綱也, 五常也. 後世道術不明, 不
인정야 삼강야 오상야 후세도술불명 불

可變者, 有時而遷改, 可變者, 有時而膠守.
가변자 유시이천개 가변자 유시이교수

此所以治日常少, 亂日常多者也.
차소이치일상소 난일상다자야

隋時: 때를 따르다/善救者: 잘 해결한 것/只: 다만/見: 보이다/於: ~에/三代: 하·은·주 시대/而已: 단정을 강조하는 어조사/固: 참으로, 진실로/鮮: 드물다/亦: 또한/未盡: 다하지 못함, 완벽하지 못함/道: 방법/大抵: 대체로 보아/可變者: 바꿀 수 있는 것/法制: 법과 제도/亘: 걸치다/不可變者: 바꿀 수 없는 것/王道: 유학의 이상정치. 본문 참조/人政: 어진 정치/三綱: 임금은 신하의 기준이 되고[君爲臣綱], 아비는 자식의 기준이 되고[父爲子綱], 남편은 아내의 기준이 됨[夫爲婦綱]/五常: 본문 참조/道術: 본문 참조/不明: 밝지 못함/遷改: 바꾸어 고침/膠守: 굳게 지킴. 膠는 아교/此: 이, 이것/所以: 까닭/治日: 다스려진 날/常少: 항상 적다/亂日: 혼란스런 날/常多: 항상 많다/者: 것

해석

때에 맞추어 폐단을 잘 해결한 경우는 하·은·주 삼대에만 보일 뿐, 삼대 이후에는 해결한 경우가 참으로 드물었고 그 또한 방법

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시대에 맞추어 바꿀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이지, 고금을 불문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왕도(王道)와 인정(仁政)과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입니다. 그런데 후세에서는 도술(道術)이 밝지 못하여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고치기도 하고, 바꾸어야 할 것을 굳게 지키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다스려진 때는 항상 적었고 혼란스런 날이 언제나 많았던 까닭입니다.